만나봅시다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김보현 원장

"백제연구는 민족뿌리 찾기"

신라 앞서 불교전래 서민 중심 문화
유적발굴·자료수집 총람 발간 계획

"신라보다 앞서 불교가 전래된 백제는 불교문화가 서민층까지 파고들 만큼 기반이 넓었고, 귀족층 위주의 신라불교문화에 비해 예술성과 조형기술이 더욱 뛰어났습니다."

최근 〈계룡산 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발간하는등 백제문화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사업을 벌이고 있는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김보현원장(전 농수산부 장관)은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소멸이 나·당 연합군에 의한 대대적인 문화말살 정책과 일제강점시기 일본에 의한 조직적인 문화재 약탈에 기인했다"며 "그나마 남은 유물·유적에 대한 보존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일본문화의 원류가 백제문화라는 점을 감추기 위해 수십대의 트럭으로 백제지역 문화재를 일본으로 옮겨간 사실은 백제문화의 씨를 말리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백제권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은 이같은 문헌 유물 유적 등의 자료부족에 기인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자료가 부족하기에 연구기관과 연구서가 태부족한 실정에 이른 것이다.

이를 볼 때 지난 82년 최원석 동아그룹회장(同연구원 이사장)의 문화재단설립으로 개원한 이래 연구원이 꾸준히 진행해 온 25건의 백제유적지 발굴 지원사업과 50여권의 연구서 발간, 30여권의 각종 학술행사 지원사업은 백제사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백제연구논저총람〉이 연구자들의 요청으로 복간되는 등 학계의 좋은 호응을 얻고, 최근 일고있는 백제문화권 개발 붐에 일조한 것이 보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는 비영리법인답게 요란스럽지 않은 차분한 연구사업을 통해 백제사 복원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의 백제유적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진 그는 지난해부터 2차에 걸쳐 '일본의 백제문화 뿌리 찾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5년내로 조사를 완료, 연구서를 낼 계획이다.

또 3년안에 〈백제유적도록〉을 완성하고, 97년까지 사진 도면 문헌 설화 등의 자료를 보완해 백제의 문화·역사를 총망라하는 〈백제문화유적총람〉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위대한 성보" 감탄의 인산인해

지난 10일 막내린 大고려국보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6일 삼성문화재단 김재열 학예연구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8만명 관람 "우리문화 긍지"
26일부터 용인서 연장 전시

삼성문화재단과 중앙일보, SBS가 공동 주최한 「대고려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1)」이 지난 7월15일 호암미술관에서 시작, 지난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18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최대 수월관음도를 비롯 불화 11점, 사경판경 5점, 불상 10점, 범종 등 국내외에 흩어진 문화재 2백66점이 전시됐던 「대고려국보전」에 하루평균 평일에는 3천여명, 주말에는 6천여명의 사람들이 다녀간 것.

이번 전시회가 신라·조선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공간'으로 방치됐던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고, 고려미술 즉 불교문화의 위대성을 온전하게 재평가하는 계기가 된 전시회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실물(實物)을 쉽게 볼 수 없었던 일반인들의 문화적 갈증을 시원스레 충족시킨 산 역사의 장이었다는 전문가들의 평도 높았다.

호암미술관은 연일 호황을 이뤘던 것을 감안, 해외소장품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미술관에서 빌려온 전시품을 제외한 자체 소장품만을 따로 모아 오는 26일부터 올해말까지 경기도 용인군에 위치한 호암미술관에서 '고려명품전'이란 이름으로 별도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6일 불교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호암미술관 관장 홍라희씨와 학예연구실장 김재열씨에게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했다.

도필선 기자

불심시심 〈31〉

솔 풍금으로 보내다

蓬萊問道道無二 (봉래문도도무이) 봉래산에서 물은 도, 도는 둘이 아니었고
香嶽重逢只此心 (향악중봉지차심) 묘향산에서 다시 만났어도 역시 이 마음뿐
日暮柴門相送處 (일모시문상송처) 해 저물어 사립문 밖 보내는 때에도
滿山松檜起風琴 (만산송회기풍금) 온 산의 소나무 제 바람에 제 거문고 소리

이 시도 편양대사가 신처사(申處士)라는 사람에게 준 시이다. 지난 호에 소개한 최생에게 주었던 시와 같이 세속의 선비에게 격의 없는 회포를 표하고 있다.

봉래산에서 만나 서로 각기 걷고 있는 길을 논의한 적이 있지만 그 길은 둘이 아닌 하나였다. 그렇다. 승·속이라는 차이에서 걷고 있는 길이 다를지 모르지만 가고 있는 지향점은 다를 것이 없다. 누구나 참다움의 실상을 추구할 때 그 실상의 외형은 다를지 모르지만 참다움이라는 실체에는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하나의 마음이었다.

오늘 그 하나였던 마음이 묘향산에서 만났다. 비록 만남의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역시 그 하나로 통했던 그 마음 그대로이다. 승속의 벽을 뛰어넘은 막힘 없는 사귐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시로 표현하자니 '다만 이 마음이거라' 하였지 말없이 오가는 마음일 것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한동안 무언의 교신이 오갔으리라.

이렇듯 말과 말을 초월한 대화에서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어느 사이 저무는 해이다. 작별의 자리로 옮겨진 사립문이다. 세속과 절간을 경계짓는 한계로서의 사립문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의 걸음은 여기서부터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역시 말이 없다. 이것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났다. 더이상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때 온 산에 솔바람이 인다. 이 솔바람 소리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을 튕겨주는 거문고 소리이자 그 소리가 이는 거문고의 줄이다. 두 사람을 이어 주는 현의 이 끝과 저 끝이다.

여기서 더더욱 묘함은 바람거문고인 것이다. 바람 소리라 하면 소나무의 움직임이 없고, 솔소리라 하면 바람이 설 곳이 없다. 차라리 거문고 소리라 함이 두 물체의 사이와 그 대경에 서있는 주객의 실체도 함께 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종찬 〈동국대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50돌
전시·강연등 행사 풍성

우리 현대사와 영욕을 함께 해 온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1일 개관 50돌을 맞았다.

〈관장 인터뷰 7면〉

이에따라 박물관은 지난 11일부터 한달간 기념전시회, 학술강연회등 다채로운 개관 50주년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시회 「국립박물관 50주년 발자취전」은 박물관 변천사를 담은 사진자료와 전시회포스터, 유적발굴 보고서 등 모두 2백50여점의 전시자료를 통해 박물관의 옛 모습을 회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전시회에는 또 첫 '유럽순회전(61년)', 국내 처음으로 제작된 '덕수궁 관화 5인전(63년)' 등 전시홍보를 위해 제작한 초창기 시절 포스터부터 올해 열린 '알타이 문명전' 까지의 포스터등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능산리 백제고분 출토 용봉향로 복각품 시판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11일 93년 부여 능산리 백제고분 건물지에서 발굴된 금동용봉봉래산향로(金銅龍鳳蓬萊山香爐)를 복각품으로 제작, 판매에 들어갔다.

실물크기(높이 64㎝)와 축소형(높이 28㎝) 2종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재외공관과 해외문화원 각급 박물관 학술기관등에 보급되고 전국 박물관의 판매점과 백화점등에서 판매된다.

실물크기는 2백90만원이며 축소형은 50만원.

백현순 무용단이 「空-우리는 무엇이고 싶다」는 테마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 대구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전국무용제에서 대구 대표팀으로 참가, 지난 15일 불교무용으로 촘사위를 벌였다.

空사상과 인간욕망 대비
백현순무용단 전국무용제 참가

전국 14개시도(서울제외)의 대표 무용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무용대축제에서 백현순 무용단은 불교의 '空'사상에 인간의 욕망과 바람등을 접목시켜 순수한 인간에서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 다시 순수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근원 회귀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붓다의 메아리' 공연
조계사청년회, 보리수합창단

조계사청년회(회장 이성상)는 조계사 만불보전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보리수 합창단 제17회 정기합창연주회 '붓다의 메아리' 공연을 오는 31일 토요일 오후7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갖는다.

순수아마추어 남녀 혼성 합창단인 보리수합창단(단장 김청청화)은 이번 정기공연을 통해 '마음의 불씨' '옴마니반메훔' '연꽃으로 다리놓아' '오늘은 기쁜날'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을 합창으로 들려줄 계획이다.

맑고 향기롭게 춘천모임(회장 함영식)이 지난 2일부터 11월6일까지 춘천 칠송동 의암산장에서 '야외조각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탐욕을 정화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이번 전시는 모란미술관에 출품하는 30대 젊은 작가들의 작품 18점이 전시된다.

"예술 통해 탐욕 씻자"
'맑고 향기롭게…' 춘천 조각전

참여작가는 김성복 김무기 김일태 송바우 송광회 이민수 설인숙 임영호 김동헌 정길택 정기웅 전덕태 이강모씨등 13명이다.

한국민화 15인 걸작선
목아박물관서 병풍등 전시

목아박물관 초대 '한국민화 15인 걸작전'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목아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한국박물관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걸작전에는 정복석 김상철 정승희 이순귀 이정동 윤인수 전연숙 이영옥 김철완 권오규 박수학 이규완 등 15인이 참여, 서민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그림에 그대로 표현한 동래부사행렬도, 일월도 십장생도 군학도 등 병풍 8점, 액자 32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월간 대중불교 9월호

정법의 눈
쇠북소리 미음의 정치 / 정경희
특집 20주기 추모특집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과 원력/이용림
특집기획 우리 속의 왜색문화
'우리' 만화를 위한 변호 / 정준영
화투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 / 박영하
개발의 빈곤과 수입의 과잉 / 김남석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생명의 모태, 바다가 죽는다 / 성낙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얼과 문화 경주남산의 감실 부처/김호형·김성철
페사지를 찾아서
강화 봉은사지 / 김상영·최태선
불교와 민속 불교와 꼭두각시놀이/김종대
전통과 오늘 사이
함께 사는 사회의 불가명절/서동석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건축사학자 신영훈 씨 / 김희균
수행으로 가는 길(6)/삼성각
바른 기도와 발원 / 이제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8)
대승의 꽃, 보시 바라밀 / 용타
교리산책/업(9) 정업과 부정업 / 정승석
에세이 보살불교(9)/지장보살(2)
지옥은 실존이다 / 일지
나의 수행담
물러설 수 없는 깨침의 세계로 / 대원성
스님께 듣습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곧 극락이지요/태원·김희균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푸른 대쪽 같은 청화 스님 / 효림
큰스님의 그늘
양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정복주
포교당 일기 부처님의 다이어트 법 /원욱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정복주·이시운·장춘석
해외 불교 읽기
환생의 나라, 티벳(3) 영성과 비극의 나라/김선정
모스크바의 원불교 한글학교
버려진 땅에서 일어선 고려인을 위하여/김희균
봉주우르, 길상 토요 전각교실 / 지묵
빛어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불교생활문화 터전 닦는 노원구 법륜왕사 / 오경숙
신행단체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 산해원지부 / 황용수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전세계 기독교회에 보내는 오쇼 라즈니쉬의 최후통첩

기독교와 禪

기독교가 미쳤는가? 라즈니쉬가 미쳤는가?

'정신적인 테러리스트', 라즈니쉬는 이 책에서 예리하고 투명한 선(禪)의 칼로 기독교계의 실상과 함께 기독교 믿음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낱낱히 질타하고 있다.

편협한 기독교인들은 당신이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형식적인 기독교의 옷을 벗고 참된 그리스도가 되라!"는 라즈니쉬의 사랑어린 충고로 받아들일 것이다.

356면/값 7,000원

라즈니쉬 유머집의 총결정판 베스트셀러
지혜로운 자의 농담 탈이데올로기·탈종교·탈지식 유머의 극치! 삶을 아름다운 농담처럼! 값 5,000원

정신문화사 Tel. 714-4273 Fax. 711-4715

출판·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광고를 해 드립니다.

◎자서전 ◎회고록 ◎출판대행
◎수필집 ◎시 집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 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도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번지 2호 선덕빌딩 3층
전화 : (02)725-6752~4
팩스 : (02)725-6920